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3.11.(수) 11:00 < 3.12.(목) 조간 > 배포 2026.3.11.(수)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착수

- 산업부,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3.11.) 개최 -
- CES와 같은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 및 지방 전시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 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 하노버메세와 같은 '대표 전시회'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강화, '한류' 인기를 활용한 K-푸드·뷰티 등 대형 소비재 전시회 기획,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방 대표전시회 육성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하였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금년 상반기까지 전시업계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장	장미연(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유강열(044-203-40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 개요**

□ (배경) 금년 상반기 中「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수립 추진

○ 관계기관 협력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전시산업 발전 T/F' 운영(月 1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3.11(수) 15:30~17:00, SETEC 컨벤션센터 3세미나실

□ (참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주재), 관계부처·지방정부·전시업계 등

○ (관계부처)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 (지방정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지원기관) 코트라, 관광공사, 전시산업진흥회(간사)

○ (전시업계) 킨텍스, 엑스코, 엑스포럼, 경연전람

○ (학계) 한림대학교 윤은주 교수

□ (주요 논의내용) 전시산업 발전 추진전략 마련, 주요 협력과제 발굴

○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 검토

○ 관계기관 주요 협력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방안 토의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5:30~15:40 (10′)	모두발언	산업부 무투실장
15:40~15:50 (10′)	발제 : 국내외 전시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전시산업진흥회
15:50~16:50 (60′)	토 의	참석자
16:50~17:00 (10′)	정 리	산업부 무투실장